

	보 도 자 료	
	작성	주거정책연구센터 박미선 센터장(044-960-0249)
	배포	홍보출판팀 김지형 3급행정원(044-960-0582) 홍보출판팀 이호창 팀장(044-960-0428)
보도일시	■ 즉시 보도 가능	

“3040 유자녀가구의 내 집 마련과 출산, 선택기준과 방해요인”

국토研, 국토이슈리포트 제78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조윤지 전문연구원은 국토이슈리포트 『3040 유자녀가구의 내 집 마련과 출산, 선택기준과 방해요인』에서 3040 연령대 자녀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자녀 출산, 양육과 주거인식을 파악하고 향후 필요한 주거정책을 제안했다.

- 서울·수도권 50%, 광역시·도지역 50%로 할당. 2자녀 이상 가구 64.1%로 평균 가구원 수 3.8명
- 월평균 소득은 5146만 원, 맞벌이 가구는 전체의 56.5%, 정규직 임금근로자는 전체의 64.3%로 안정적인 소득원을 갖추고 있고 가구 소득이 높은 편임

□ 주로 자가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자녀교육이 주택 선택에 중요한 요인이며, 층간 소음과 주차공간 만족도가 낮음

- 3040 유자녀가구는 주로 자가(62.6%)에 거주하고 있으나 서울은 자가거주 비율이 44.5%로 낮음
- 주택 유형은 주로 아파트(77.8%)이고 서울(63.3%)에 비해 수도권 외 지역의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음
- 현 주택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학교, 학원 등 자녀교육 여건이고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교육이 중요
-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주택면적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층간 소음과 주차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편

〈표 6〉 주택유형

(단위: %)

구분	단독	연립·다세대	아파트	기타	계
전체	9.1	11.9	77.8	1.2	100.0
서울	10.4	25.2	63.3	1.0	100.0
인천·경기	9.1	12.5	76.7	1.7	100.0
광역시 등	6.9	7.1	85.4	0.7	100.0
도지역	9.8	7.2	81.8	1.1	100.0

주: 3040 유자녀가구 3,042가구를 대상으로 함.

〈표 8〉 주택 선택 요인(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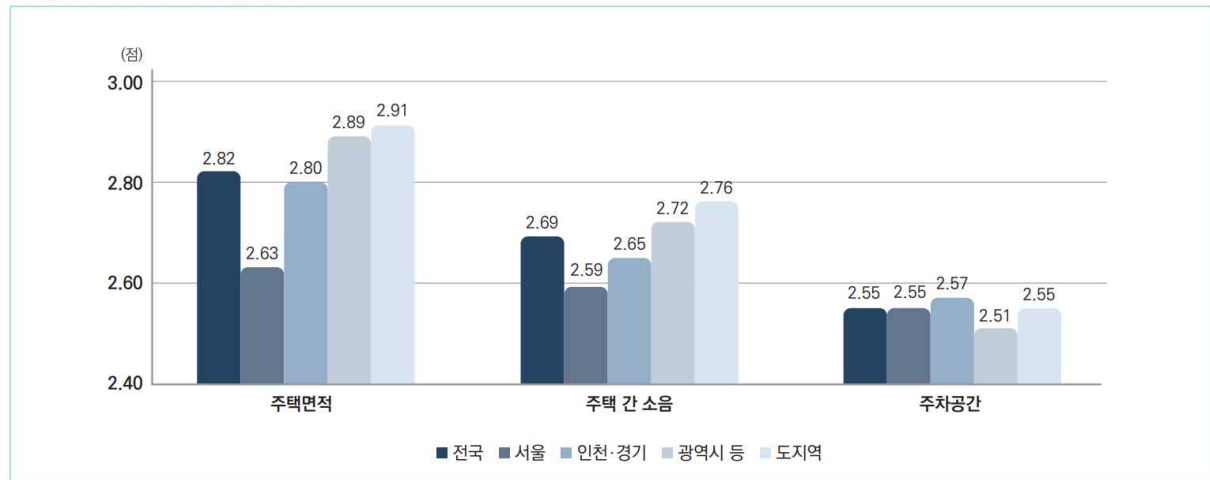
(단위: %)

구분	구분	자녀교육	주택 및 임차료	직장거리	주거환경	양육도움	자산가치	기타
전체		32.4	24.4	17.1	12.7	9.1	3.9	0.4
지역별	서울	31.5	22.9	20.2	10.1	11.4	3.4	0.5
	인천·경기	29.0	29.1	16.6	12.5	7.7	4.7	0.3
	광역시 등	34.4	23.0	16.0	12.8	10.0	3.5	0.2
	도지역	35.5	20.5	16.9	14.3	9.0	3.4	0.3
소득별	300만 원 미만	27.2	36.0	12.8	11.8	9.0	2.8	0.5
	300~500만 원	29.8	27.8	16.5	12.4	9.5	3.3	0.7
	500~700만 원	34.3	22.4	17.8	12.3	9.7	3.4	0.1
	700만 원 이상	34.9	17.4	17.5	14.6	9.4	6.1	0.1

주: 1) 3040 유자녀가구 3,042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은 무응답 304가구를 제외한 소득 결측이 없는 2,738가구를 대상으로 함.

〈그림 1〉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주: 1) 만족도는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만족, 4 매우 만족'의 4점 척도임.

2) 3040 유자녀가구 3,042가구를 대상으로 함.

□ 최초 주택 마련은 결혼 전에 3분의 1, 현재 거주주택 마련은 주로 자녀 출산 이후에 이루어짐

- 현재 자가인 경우 생애최초주택 마련 시점은 결혼 전 34.4%, 첫 자녀 출산 이후 29.3%, 둘째 출산 이후 28.7%로 증가. 대체로 자녀 출산 이후 내 집 마련 증가
- 자가가구의 55.8%는 생애최초주택 마련 이후 계속 거주하고 있음
-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은 결혼할 때(51.2%)보다 자녀 출산 이후(71.1%)에 상승하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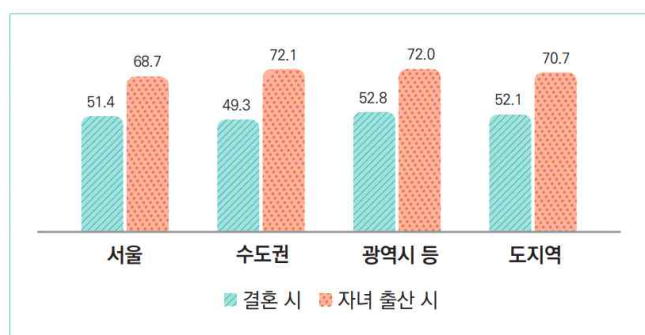
〈표 16〉 시점별 자가 마련 필요성

(단위: %)

구분	결혼 시	자녀 출산 시
전체	51.2	71.1
서울	51.4	68.7
인천·경기	49.3	72.1
광역시 등	52.8	72.0
도지역	52.1	70.7

주: 1) 3040 유자녀가구 3,042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자가 마련 필요성은 '필요성이 높다'와 '매우 높다'의 합.



□ 향후 출산 의향은 9.6%로 낮으며 출산 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은 양육·교육 등 비용 부담과 일·가정 양립 어려움을 지적

- 향후 출산 의향은 1자녀인 경우(19.4%)와 임차가구가 높지만 전국 평균은 9.6% 수준
- 출산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은 양육비용 부담(26.4%), 교육비용 부담(20.0%), 일·가정 양립 어려움(22.8%), 일자리 유지 어려움(17.6%)이 거론됨

〈표 13〉 가구 특성별 향후 출산 의향

(단위: %)

지역별		점유형태별		자녀 수별	
전체	9.6	평균	9.6	평균	9.6
서울	11.5	자가	7.7	1자녀	19.4
인천·경기	8.4	전세	13.6	2자녀	4.0
광역시 등	10.1	보증부 월세	10.8	3자녀 이상	4.3
도지역	9.5	무보증 월세	16.7		

주: 3040 유자녀가구 3,042가구를 대상으로 함.

〈표 14〉 출산 결정 시 방해 요인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양육비용 부담	일·가정 양립 어려움	교육비용 부담	일자리 유지 어려움	주거비 부담	기타	계
전체	26.4	22.8	20.0	17.6	7.6	5.8	100.0
서울	21.6	21.1	22.2	17.4	8.7	9.0	100.0
인천·경기	27.5	20.5	20.7	16.9	8.9	5.5	100.0
광역시 등	26.7	25.6	20.8	16.5	6.2	4.1	100.0
도지역	26.9	25.2	17.7	19.1	6.0	5.0	100.0

주: 3040 유자녀가구 3,042가구를 대상으로 함.

- 따라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근로 유연성(28.0%), 양육 친화적 직장(23.2%), 양육·교육 등 비용 지원(19.9%), 보육시설 확충(18.8%)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
- 주거안정을 위해 중요한 정책은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지원(34.6%), 우수한 입지에 주택공급(27.7%),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20.0%) 순이며 서울에서는 무주택자 내 집 마련과 도심 주택공급이 유사하게 중요

〈표 15〉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유연한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양육 친화적 직장문화	비용 지원	보육시설 확충	유자녀가구 청약기회 확대	기타	계
전체	28.0	23.2	19.9	18.8	7.6	2.5	100.0
서울	31.7	21.8	14.6	19.1	8.4	4.5	100.0
인천·경기	27.3	21.7	20.4	19.7	8.3	2.5	100.0
광역시 등	29.2	25.2	20.0	17.4	6.2	2.0	100.0
도지역	25.8	24.3	22.2	18.5	7.4	1.7	100.0

주: 3040 유자녀가구 3,042가구를 대상으로 함.

□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지역에 따라 중요하고 효과가 높을 것으로 인식하는 정책의 차이가 선명하므로, 전국적 정책의 기본 틀에서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차별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서울에서는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중요하고 효과도 높은 정책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 인천·경기에서는 입지가 좋은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무주택자 자가 마련 지원이 효과가 높은 정책이라고 인지하고 있으며
- 도지역에서는 오히려 주택품질 제고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효과가 높은 정책으로 이해

〈그림 6〉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중요도 및 효과성 인식



주: 3040 유자녀가구 3,042가구를 대상으로 함.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김지형 3급행정원(☎044-960-05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